함평군-bhc그룹, 농산물 전국 유통 위해 '맞손'

다양한 외식 브랜드 보유한 최대 종합 외식기업

안정적인 판로 제공해 상호간 상생협력 도모

함평군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 bhc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19일 "bhc그룹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임금옥 bhc그룹 대표이사, 금석헌 농업회사법인 해성 대표이사, 호남청과 고인수 대표이사, 오재갑 제일A&H 대표이사, 함평군 양파생산자협의회 정찬행 회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bhc그룹은 bhc치킨 외에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족발상회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 외식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과 관내 농가는 우수한 품질의 함평산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bhc그룹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상호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양파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을 비롯해 해성푸드원을 통해 라면스프, bhc치킨 소스 원료로 연간 910톤 가량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이 다양한 유통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돗물 아껴쓰기 실천 운동

영광군은 최악의 가뭄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아름다운 콘서트 With김종서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물 절약 실천 및 하수도 관리 방법과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을 홍보하였다.

현재 광역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18.0%, 지방상수원 저수율은 37.8%이며 지난 12일 13.8㎜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로 수돗물 생산이 계속 이뤄진다면 올해 6월 말에는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캠페인은 현재 물소비량을 감안하면 향후 군민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절수 운동과 올바른 하수도 관리 참여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해 상수도 요금감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요금감면 대상은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수용가이며(낙월면, 옥내누수, 급수 중지, 정지 수용가 등 제외) 요금 감면 기간은 가뭄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현재 6월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지방의회 선진 정책 견학지로 '각광'

신안군이 전국 지방의회의 선진 정책 견학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대전 유성구의회, 무안군의회, 서울 영등포구의회 등 5개의 시군이 신안군을 방문하였으며, 평택시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의회에서 방문 문의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안군을 찾은 지방의회들은 ▲버스 완전 공영제 ▲1도 1뮤지엄 ▲사계절 꽃 피는 1004섬 등 신안군 만의 우수한 정책의 벤치마킹과 ▲퍼플섬 ▲1004뮤지엄 파크 ▲천사섬 분재정원 등 관내 대표 관광지 방문을 통해 세계 속의 신안군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은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신안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신안군의 앞서나가는 정책과 아름다운 명소들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신안군 방문을 계획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어업 소득 활성화를 위한 '개체굴 양식'과 '어선 임대사업' 및 관광 개발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정책 추진에 집행부와 긴밀한 협치에도 앞장서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무안읍~남악·오룡 100번 버스 개통식

무안군은 17일 11시에 일로읍 오룡차고지에서 무안읍~남악·오룡 운행하는 100번 신규 버스노선의 개통식을 개최했다.

무안군수를 비롯한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나광국 전라남도 도의원,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 관계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대와 관심 속에 거행되었다.

100번 버스의 개통은 남악·오룡개발로 신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무안읍과 연결되는 직통 버스노선이 없는 아쉬움과 통학, 출·퇴근 등 교통이동의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산 군수는 "이번 100번 버스 운행은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무안군민으로서 연대감 강화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운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현대적 시설 갖춘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속도

남진 야시장 개장…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목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남진 야시장이 17일 재개장한다. 남진 야시장은 자유시장 내에 마련되는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전통시장의 야간영업을 넘어 추억·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개장 첫날에는 우리 지역 출신 가수인 윤선영의 축하 공연과 함께 농수로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대에는 낙지호롱, 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소품, 방향제, 잡화 등의 프리마켓 21개 매대가 판매를 준비 중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남진씨의 이름을 딴 남진 야시장은 2015년 말 첫 개장했다. 목포역에서 멀지 않고 대표 관광명소인 삼학도가 인근에 위치해 여행객과 시민들 모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목포시는 지역 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청호시장 모바일 디지털시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2월말까지 250여건의 인터넷 주문이 이뤄지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년 이상 오랜 역사로 목포의 전통시장 1번지라 불리는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해 쾌적한 시설로 거듭난다. 동부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전문 인력인 시장매니저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이동군수실' 큰 호응

우승희 영암군수가 연일 민생 현장을 직접 누비며 군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군정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우 군수는 16일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이동군수실'을 열고 주요사업 및 개인별(마을별) 고충 민원 등을 중점 상담하며 민선8기 군정을 공유했다.

이날 이동군수실을 통해 우 군수는 주요 기관·사회단체장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신호정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기업(선보유니텍)과의 면담에 이어 난전지구 주민 등 센터 방문자들과 개별상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대불주거단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동군수실을 방문한 주민들은 ▲신호정 마을 안길 확장공사 건의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 확대 ▲난전지구 가로등 설치 및 하수구 배수로 정비 ▲모밀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노점상 단속 등 다양한 사안들을 건의하며 허심탄회하게 일상의 고충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영암=조대호 기자